

**舞**

# 조선무용통신

発行：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 舞踊部 〒112-8603 東京都文京区白山4-33-14 TEL03-3817-0431

제 1 호 (류계 제 1 호)

주제88 (1999) 년 2 월 1일 (월)

## 민족문화의 기수가 되자!

희망찬 새해 1999년을 맞이하면서 문예동무용부맹원들과 무용애호가 여러분들께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재일동포사회에서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부문인 민족무용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예동중앙무용부는 올해부터 무용통신을 여러분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아이찌현에서 <전국무용부장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각지에서 민족무용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있는 무용부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틀간에 걸쳐 맹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우리들은 일본땅 방방곡곡에서 광범한 동포들과 일본인민들을 망라하여 성황리에 진행된 무용공연과 3년간에 걸친 조국강사에 의한 《조선무용강습회》의 성과에 토대하여 개인의 명예나 취미가 아니라 조국과 민족, 조직과 동포들을 위한 민족무용운동을 더 적극 벌려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우리들은 문예동결성 40돐을 전체 맹원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열렬히 맞이하며 2000년에 제기되는 무용발표회를 높은 창작공연성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자체의 기술기량을 한계단 높여 무용예술의 아름다운 꽃을 계속 피워나갈것입니다. 그 사업을 준비성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이번 <무용통신>을 발간함으로써 무용운동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소개할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 활동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데 도움을 주자고 합니다. 이역땅의 칼바람은 계속 사납게 불고있으나 다가오는 21세기에 대한 희망을 안고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민족문화를 지켜가는 기수로서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갑시다.

문예동중앙 무용부장 현 계 광

## 자랑스러운 한페이지로

## 친근한 길동무

희망에 넘친 새해 벽두에 통신을 발간하게 된데 대하여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신의 발간은 40년의 문예동력사에 새롭고 자랑스러운 한페이지로 엮어질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문예동결성 당시로부터 문예동중앙의 무용부 부부장, 부장, 그리고 금강산가극단의 무용부장의 직책을 오래 맡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의 무용생활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제가 무용을 시작했을 때는 조국이 얼마나 멀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과같이 조국이 이처럼 가까워진적은 없습니다.

조국의 부름을 받아 조국에서 배울수있고 조국에서 무용강사들이 오시고 조국의 이름난 안무가까지 오시여 작품을 창작해주시고 공연할수 있는 지난날에는 상상조차 못하는 행복한 세월이 되었습니다. 최근년간 재일무용계의 활동은 몰라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의 무용인구는 그 어느때없이 늘어나고있을 뿐만아니라 무용활동의 형태와 방법도 다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무용의 인식과 지향, 그리고 요구성도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발간되는 통신이 재일무용가들이 문예동에 단합하여 기술기량을 일층 제고해나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놀 것이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새해에 문예동무용부의 사업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마지막 해인 1999년을 맞으면서 전국에 있는 무용가들과무용애호가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내며 아울러 무용통신을 발간하게 된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일본에서 조선의 민족무용운동은 총련결성 이래 조국의 따사로운 배려와 총련조직의 올바른 지도밑에 오늘까지 눈부시게 발전해왔습니다.

금강산가극단, 지방가무단, 전국에 있는 문예동무용부 맹원들은 오늘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놓고 있습니다.

최근년간 조국의 우수한 무용강사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아 사상예술적으로 큰 발전을 가져왔으며 문예동무용부의 통일단결을 한층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발간하게 될 무용통신이 20세기를 자랑스러게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지향하는 재일조선인무용운동에 큰 도움이 되며 무용가들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무용훈련을 잘하여 몸과 마음 든든히 총련애국사업에 이바지해나갑시다!

인민배우 임 추 자

인민배우 리 미 남

## 《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나날 》

저물어가는 1998년 12월말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음악무용가대표단의 한성원으로 서 저의 무용창작생활에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12월 17일 뜻깊은 특별공연의 막을 성과적으로 내리고 석별의 아쉬움을 안은채 재일조선인무용가동지들에게 간단한 저의 인사를 드리는바입니다.

그 언제나 그러한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의 독창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애국, 애족, 조국통일 성업에 헌신분투하신 그 순결하고 청결한 충효의 한마음이 밝아오는 1999년 새해에도 반드시 이어지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총련문예동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재일조선인무용가동지들이 총련조직에 그 어느때보다 철동같이 뭉쳐 하나의 호흡, 하나의 룰동, 하나의 무대에서 아름다운 민족의 춤으로 우리들의 운명이시며 행복과 희망의 상징이신 70만의 어버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주체적문예예술의 대화원을 해외일본땅에서 꽃피주실것을 절절히 희망합니다. 앞으로 동지들의 애국사업과 무용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를 축원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23일 도표

인민예술가 백 환 영

## 군중문예활동의 주인은 우리 !

문예동 도끼이지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과 문예동 도끼이지부 무용부결성 10돐기념 제4차 <조선무용의 밤> 이 지난 12월 6일 아이찌현근로회관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공연에는 문예동도끼이지부 무용부를 중심으로 현하 초중고급학생들 110여명이 출연하였으며 여기에 1200여명의 관람자들이 모였다. 우리 무용부는 2세들과 3, 4세동포녀성들이 함께 어울려 동포사회에서 민족무용을 지키고 그 매력을 알려나가는 일념으로 이번 공연을 기획, 조직하였다.

맹원들은 제3차 <조선무용의 밤> 을 가진 후 조국강사에 의한 무용강습회참가를 계기로 성인조, 청년조를 무어 공연 그날까지 3년간 주에 한번 꾸준히 연습해왔다. 맹원들은 공연준비기간 일본무용교실 350여개소에 공연안내를 보내고 입장권판매, 광고사업도 모두가 힘을 합쳐 짜고들었다. 맹원들은 그 과정에 군중문예운동의 주인은 우리라는것, 사업전개에서 서로 믿고 도와주는 기풍을 세우면 정이 오가고 합심할수 있다는것, 전체 맹원들이 주인으로 나설 때 큰 일을 해낼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 자신을 가지게 되었다.

전체 맹원들이 합심해서 마련한 이번 공연은 3년간의 연습성과를 보여주듯 질량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민족무용의 아름다움을 한껏 펼쳐주었다. 공화국기발을 상징한 무용 《삼색춤》으로 막을 올린 공연은 1부에서 우리 무용의 멋과 흥을 안겨주는 《소고춤》, 《풍니리》, 《경북춤》이 무대에 올랐다. 공연 2부에서는 군중문예운동의 주인으로 나



서겠다는 문예동맹원들의 결심을 담은 창작무용 《미래》, 《내 사랑하는 꽃》 등이 피로되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리정금동포는 《조직을 믿어서 살아온 보람을 오늘처럼 느낀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미나또의 어느 동포는 《민족성을 과시하는데 있어서 문예동사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논다》고 하면서 계속 도끼이문예동사업에 많은 힘을 넣어달라고 고무해주었다.

도끼이지부 무용부 맹원들은 이번 공연을 새출발로 삼고 민족의 자랑이며 귀중한 재부인 조선무용을 통해 동포들에게 조국애 민족애를 심어주고 동포사회생활에서 민족문화가 꽃피는데 한몫 기여할 포부에 차념치고있다.

## 《금강산의 무희들 2》 특별공연을 끝내면서...

금강산가극단 무용부

1998년 12월 17일 금강산가극단 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뜻깊고 의의깊은 《금강산의 무희들 2》 특별공연이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파사로이 이끌어주시어 해외에서도 주체예술을 활짝피운 가극단은 조국의 사랑, 조국의 유능한 창작가들의 지도가 없이는 주체예술의 대를 계승해오지 못했을것이다.

이번 공연은 20여년이란 오랜기간 총련

의예술발전을 위하여 창작활동을 해오신 인민예술가이시며 국립민족예술단의 안무가이신 백환영선생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선생님의 창작품을 무대에서 발표하는 특별기획의 공연이었다.

우리 금강산가극단 무용부성원들은 약 한 달동안 백환영선생님에게서 많은것을 배울수 있는 영예롭고도 의의깊은 나날을 보냈다. 창작창조과정에서 타협이 없으며 높은 예술형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계속 요

구성을 높여 배우 한명, 한명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무용가로서의 예술적량심을 느끼지 않을수가 없었다. 《예술은 탐구와 정열의 산물이다》고하신 백안무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높은 수준에서 향상하기 위해 우리 배우들은 자기 기량을 백방으로 발휘하면서 내면세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자기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찾아내야 하였다.

또한 안삼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섬세한느낌과 감정의 일치를 가져야 한다는것, 민족적인 춤을 향상하는데서 장단의 특성을 살리면서 억양을 몸과 호흡으로 표현해야 한다는것 등 높은 요구성이 제기되면서 모두가 자기와의 투쟁을 벌이지 않을수 없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과정은 진지한예술적탐구와 정열이 요구되는 과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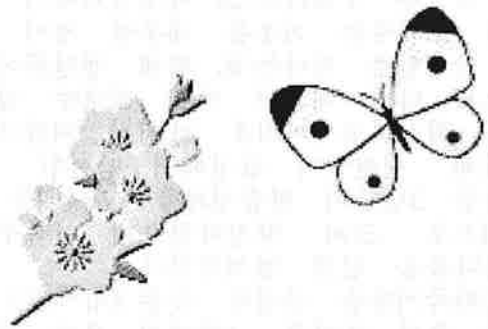
이번 공연을 계기로 백안무가와 무용부를 비롯한 가극단 전체 성원들은 꼭 성공시킬 하나의 마음으로 통일단결되었다.

이번 공연의 창작창조과정에 정열넘치는 백선생님의 모습에서 진짜 예술가가 어떤 사상을 갖고어떻게 생활하며 살아나야 하는가에 대 하여 배울수 있었다.

또한 무대를 통하여 주체예술의 우월성과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가슴깊이 간직할수 있었다. 우리 무용부성원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얻을수가 있었으며 총련문예일군으로서, 참된 예술가로서 자각을 갖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일생을 두고도 잊을수 없는 백환영안무가와 예술창작창조의 나날을 잊지 않고 해외예술인으로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문예전사로서 본분을 다해갈것이며 앞으로의 공연활동에서 이 귀중한 경험을 살려 일신된 무용부의 기세를 무대에서 활짝 꽃피어나가겠다.



## 《재일조선학생중앙예술경연대회》강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기념 제 31차 재일조선학생중앙예술경연대회가 지난 11월 1, 2일의 량일간에 걸쳐 오사카에서 진행되었으며 그에 앞서 4개소에서 지방경연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는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이한 높은 긍지와 자랑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따라 나아가는 확고한 결의에 충만된 대회였으며 예술교육과 소조활동의 성과가 남김없이 과시된 대회로 되었다.

무용부문경연에는 중급부 35연목에 연 255명, 고급부 42연목에 연 285명, 모두 77연목에연 54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공화국창건 50돐을 맞는 올해, 경애하는 장군님을 국가최고수위에 모시게 된 격동되는 정세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의욕적이며 높은 수준에 이른 력자들이 학생들에 의하여 훌륭히 향상되었다. 기본동작부문에서는 조선무용의 기초를 든든히 닦으려는 노력과 연습성과가 잘 나타나고있었으며 중, 고급부는 수준도 고르로워졌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조국의 강사선생님들에 의한 조선무용강습회의 성과이며 결실이다. 시대성과 현대성, 또한 민족적정서와 감정이 흘러넘치는 작품들이 학생들에 의하여 잘 형성되었다.

나카오사카초중과 아마가사키초중의 군무를 비롯하여 공화국창건 50돐을 뜻깊게 맞이하려는 학생들의 생활과 감정이 진실하게 표현된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며 도꼬조고와 고베조고의 군무도 사상에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이었다.

민속무용들도 구성과 춤가락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므로써 짜여져있었으며 학생들의 기술기량이 충분히 발휘되어있었다고 높이 평가할수 있다. 지바초중과사이다마초중 중급부학생들의 중무, 히로시마초중고 고급부학생들의 중무는 민속무용의 특색을 잘 살려 매력있는 춤가락과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모범이라고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같이 가르치시었다.

《무용예술에서 민족적형식을 살리는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은 무용예술에 민족적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반영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무용예술이 민족적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반영하는것은 인민들의 민족적인 생활정서와 풍습을 가장 집중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기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로서는 우선 조선무용의특징과 민족적정서를 깊이 연구파악하고 그것을 철저히체득해나가야 할것이다.

조선춤은 팔동작을 위주로하면서 거기에 다리동작을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몸전체가 조화롭게 움직인다. 여기에 조선춤의 독특한 맛이 있다. 조화롭게 다듬어지고 세련된 조선춤은 조선장단의 억양에따라 이루어지며 유순하고 부드럽고 섬세하며 기백있고 또한 약동적이다. 이러한 조선무용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면서도 시대감정, 현대적미감에 맞게 형상해야 하는데 적지 않게 조선무용의틀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현대화되거나 안삼불수준을 높이자는 나머지 기계적으로 춤추는 등 춤성이 파괴되는 경향이적지 않게 있었다. 이것은 조선무용의 고유한 춤성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습득 못하고 무용창작을 조선춤의 바탕에서 벗어나므로써 어느 나라 무용인지 모르는 작품들을 내놓고있는데 큰문제점이있다.

또한 민족적인 맛과 멋을 낸다고하여 지나치게 형상하거나 년령에 어울리지 않는표현도 엿보였다.

음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되는대로 춤을 추는 현상을 없애야 하며 덮어놓고 동작을 마구 집어넣음으로써 탄잡하게 춤을추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아직도 춤의 기본자세, 무용적몸자세가 바로 서지 못하고 중심축을 바로세우지

못한채 마구 돌거나 속도를 빨리 하는것은 조선무용을 정확히 습득하는데서 결정적인 부족점으로 되며 경계해야 할것이다.

특히 무용작품에 대한 깊은 파악과 감정정서에 대한 리해를 깊이 하고 자신의 사상감정으로 표현할수있도록 하여야 교육교양적의의가 있을것이다.

초급부 경연부문은 지방대회에서만 진행되었으나 그 수준은 높지 못하였다.

특히 기본동작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고 조선무용기본을 잘 모르는채 《학생소년무용기본》을 함으로써 동작의 속성과 춤성이 외곡형상된 경향이 많았다. 《학생소년무용기본》은 어디까지나 《조선무용기본동작》을 동심세계에 맞게 만든것임으로 그 기초수행원리는 똑같다. 어릴 때부터 정확한 기초동작, 기본동작훈련을 일상적으로 잘해야 육체적, 정서적준비를 잘 할수 있으며 작품도 훌륭히 형상할수 있다.

중급부, 고급부 기본동작도 통일적으로 강습을 진행하였는데 제각기 억양과 호흡이 달라지는것은 정확한 파악과 지도가 부족한것으로 볼수 있다. 경연성적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없애도록 하여야 하며 어디까지나 교육적이고 교양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가야할것이다.

앞으로 고급부, 중급부에 이어 초급부 기초동작을 정리정비하며 보다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무용을 배울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999학년도로부터 초급부의 기본동작을 개편하여 점차적으로 보급해나갈 요 구성에 따라 학교무용소조지도원 및 강사들은 부단한 연구와 창조적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올해 이어 기본동작에 대한 요구성, 경연평가기준을 경연대회 심사기준과 파제작품경연규정들도 부단히 연구개선해나갈 것이며 경연대회 조직사업도 크게 개선해나갈 시기에 와있다.

격동되는 시대, 엄혹한 내외정세속에서 21세기는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재일조선인운동에 구현하는데서 무용교육, 무용소조활동은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늘고있다.

무용소조지도교원들과 강사들이 합심하여 책임적으로, 량심적으로 사업함으로써 학생들을 유능한 애국인재로 키워나가야 할것이다.

## 공훈예술가 박 정 순

(학생예술경연대회 무용부문 심사책임자)

## 행 사 예 정

- 2월 26일 《2월의예술의 밤》공연 (新宿文化センター)
- 4월 초순 4월 봄 축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 6월 7일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결성 40돐 기념일
- 6월 28, 29일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창립 40돐 기념행사 (北とぴあ)

## 무용자료안내

- 〈조선무용기본동작 1〉 비디오테이프 ¥3,500-  
음악테이프 ¥1,500-
- 〈조선무용기초동작 1, 2 단계〉  
비디오테이프 ¥3,500-  
음악테이프 ¥1,500-

### § 近日発売 §

CD판 〈조선무용아동곡집 15곡〉¥2,500-

※이 CD는 무용을 자유롭게 창작할수 있도록 제목을 달지 않았습니다.

☎ 문의는 문예동중앙 ☎03-3817-0431에!

각 문예동지부의 활동소식, 예정을 기사로 해서 적극 보내주십시오!

焼肉と家庭料理の店

K A Y A  
**伽 倻 の 家**

金 海 理

埼玉県浦和市高砂1-10-6  
TEL048-824-5584

朝鮮風居酒屋

**三 味**

東京都足立区栗原3-30-6  
TEL 03-3856-1356